

-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교육하는 젊은 층 대상 워크숍 필요
- 55세 정년퇴직 정책 유지로 잦은 피지 고위직의 인사이동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 의지가 제한되면서 일부 국가의 무형유산 지원 프로그램 및 후원이 빈약해짐

지금까지 개발 부문의 젊은 인력을 지원한 무형유산 옹호자의 후원 덕분에 NGO와 정부, 태평양 지역 NGO 협력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의 활동 기록 및 활성화가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여 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무형유산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약을 그치지 않고 보여 주기 바란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역량 강화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

유재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

머리말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유산의 원형 보전에 노력해 왔다. 무형유산은 인간 생활의 여러 복합 요소를 포함하며, 유형문화재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 지원 등 여러 제도를 기반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 무형유산 보호의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문화유산 보전 관리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해 온 방식에서 각종 단체나 민간 부문, NGO의 역할로 옮겨 가고 있는 추세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지역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무형유산 자문기구로서 NGO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무형유산의 종합 기구로서 국립무형유산원(NITH)이 출범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지원, 조사연구, 기록화를 비롯해 무형유산의 진흥을 위한 공연 및 전시와 국내외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무형유산 NGO의 역할과 현황

2003년에 채택된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지역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무형유산 자문기구로서 NGO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무형유산 보호에 전문가, 지역, 민간의 참여를 통해 좀 더 포괄되고 종합된 보호 활동을 끌어낼 수 있다. NGO의 역할과 정의에 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나 성격, 역할, 활동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인가NGO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 기관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보급 선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무형유산을 활용한 공연, 전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NGO의 기능 및 역할은 상호보완과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이전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무형유산 정책은 각 지역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무형유산은 유형문화재와 달리 종목과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거기에는 또한 인간의 문화, 습관, 생활, 정서, 지역에 따른 자연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성이 내포되어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함께 한 지역의 환경이나 집단, 공동체와의 문화와 정서가 결합되어 표현되기 때문이다.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아닌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NGO를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보유자, 국제 등으로 구분해 볼 때 NGO별로 목록작성, 전승, 연구, 조사, 교육, 자문역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상호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면서 활동 결과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NGO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NGO 자체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기에 정부가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NGO 성격에 부합하거나 조직화된 NGO로 앞에서 언급한 4개 기관이 있지만 이 밖에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NGO로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무형유산 보호, 전승, 교육, 지원이라는 역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 기관으로는 국내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문화원이 있다. 문화원은 지역 구성원 자의로 조직된 경우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 구성원 자의로 조

직된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부분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의 문화원에서는 그 지역의 무형유산 조사와 기록화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의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단으로서 무형유산 전수관을 운영하며 공연, 전시,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형유산 시민단체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 유형문화재 시민단체는 이미 활성화되어 문화재 모니터링, 보호, 감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대부분 무형유산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이 취약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조직의 구성, 인력, 예산, 협조 체계 구축 부족 등을 근본 문제로 들 수 있다.

NITH의 기능과 역할

국립무형유산원(NITH)은 2013년 10월 1일 문화재청 산하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무형유산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기구다. 다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승자의 전승 역량 강화, 조사연구 기록, 국내외 교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 지자체, 민간기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전승자와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전승자 지원과 각종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동시에 사라져 가는 무형유산의 기록과 목록 작성, 아카이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공연과 전시를 통해 전승자와 이수자들에게 기예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승 활동을 돕고 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전승 활동 지원의 대표 사례다. 이는 지자체에 건립된 전수교육관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의 확산과 보전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전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젊은 세대로의 전승을 위한 무형유산 교육도 개발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으로는 해외 전승자 활동 지원, 관련 기관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NITH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협력,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한다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정책 수립을 주요 업무로 한다. 문화재청이 상위 기관으로서 정책의 전체 틀과 제도 개선, 중요무형문화재 인선정 등을 담당한다면 무형원은 현장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연구, 기록화, 전승 등의 보호 활동에 NGO 그룹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2013년에 무형원에서 구성한 무형유산지킴이 사업은 '무형유산을 지키는 보호(Safeguarding)와 서로 협력(Cooperation)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서 무형유산의 조사, 발굴, 보존, 육성과 함께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를 의미함과 더불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망을 나타낸다. 현재 무형유산지킴이는 직업, 연령, 지역을 망라하여 총 64명이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무형유산 조사, 전승 현황 조사, 모니터링, 무형유산 발굴,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실제로 NGO 역할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형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연계망 구축으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성과는 미미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체의 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무형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성은 국가 기관인 무형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조사 기법이나 목록화 작업, 모니터링 기법과 같은 전문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형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전승자,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과 체계를 갖춘 무형유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NGO 역량 강화를 위한 NITH의 역할

무형유산 NGO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NGO의 기반 구축이 시급할 것이다. NGO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NGO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대부분 인력, 재정, 조직 등이 취약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무형유산 보호나 전승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협력까지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거의 없고,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의 사안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도 없다. 따라서 별개로 움직이는 이들을 하나로 모아 주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을 정부 기관에서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형원이 정부 기관이면서 무형유산의 종합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목록화, 모니터링, 조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다. 무형유산 관련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국내의 환경 분석,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이다. 공연, 전시와 같은 기회도 있지만 무형유산의 조사와 기록화 사업도 있다. 알려지지 않은 무형유산 발굴은 지역 구성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들을 통해 무형유산을 발굴, 조사하여 기록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은 목록 작성 방법이나 조사 방법을 알려 주고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과물을 게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도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NGO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다. 정기 워크숍 개최, 온라인 연계망 구축, 국립무형유산원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형유산지킴이는 정부와 NGO 간의 역할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한다면 무형유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